

공공·행복주택...영암군 주거복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영암읍 남풍리에 150세대 대불산단 인근 행복주택 250세대도 9월 중 공사 시작

영암군이 지역민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150세대를 짓고, 최신 주거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6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난 3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주민

과 지자체, LH, 정부 등이 협업을 통해 지역특색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주거기반 시설 조성까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골목길 정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연계하는 만큼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에 관심이 높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영암읍 남풍

리 일원에 국민임대 70호, 영구임대 30호, 행복주택 30호 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또 주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군 관리계획 변경, 입주자 모집 등 홍보를 지원하게 되며, LH는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신청, 부지보상, 설계·시공·준공, 주택 공급·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영암군과 LH는 이달내로 용역에 착수하고, 올해말 인허가 승인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영암군내 젊은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대불국가산업단지 인근(삼호읍)에 행

복주택 250호 공급을 위한 사업승인을 완료해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을정비계획과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암군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한 공공실버주택사업, 행복주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청년 주거안정과 소외계층 및 실버세대 주거안정 등 군민 주거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강진 노지 미나리 수확 강진군 강진을 동성리의 한 미나리밭에서 농부들이 봄 입맛을 돋아주는 향긋한 노지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농업기반정비 국·도비 77억 확보

금강지구·남호지구 밭정비 등 내년중 공사 착수

강진군이 내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 77억원을 확보해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동면 금강지구 대구경지정리사업과 대구면 남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용정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국비와 도비 77억원을 받아 우량농지로 조성된다.

이번 공모 사업 확정으로 군은 국도비 77억원을 포함해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배수로 36.13km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고, 농로 21.0km를 포장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3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계획을 마무리한 뒤 2018년에 공사를 착수해 봄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관개 및 배수 등의 물 관리와 각종 영농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농의 근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비 부담이 적은 국비와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이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구석구석 꼼꼼히...봄맞이 대청소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진 6일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서 강진군 여성농수산물대원들이 자율적으로 군내버스 승강장 등을 청소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여성 농어업인들이 행복한 강진군

1인당 연간10만원 '행복바우처' 13일까지 신청

강진군은 "오는 13일까지 관내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으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등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합산 농지소유면적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로 타 직종 종사자와 유사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정팀(061-430-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영암경찰은 "최근 월출마루에서 경찰서장, 과장 및 계장, 파출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3~4월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활동캠페인을 실

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건화 영암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신학기는 학생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만큼 학교폭력범죄근절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부동산
중개법인**

한 국 토 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청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



대지 215평 최저가 1,492,071,000
건물 467평 감청가 2,131,071,000

중흥동 상업지역 토지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청가 3,038,985,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화정동 상가사무실



대지 48평 최저가 382,407,650
건물 160평 감청가 382,407,65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동읍)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형



감청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